



[산업] 삼성의 혁신 전가차용 배터리 전고체전지 개발 06



Economy

| | | | | | |
|---------|---|-----------------|-----------|---|------------------------|
| 코스피 | ↑ | 1962.93 (+8.16) | 코스닥 | ↑ | 619.97 (+5.37) |
| 금리 (2년) | ↑ | 1.08 (+0.04) | 환율 (원/달러) | ↓ | 1193.20 (-11.00) (10일) |



코로나 면회 금지에, 로마 교도소 폭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가족 면회가 제한되자 재소자들의 폭동이 벌어진 이탈리아 로마의 레비비아 교도소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AP=연합뉴스

거래량 3배 늘면, 공매도 금지

금융위, 주가폭락 단계별 비상대응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강화

정부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대비 3배(현재 6배)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 5배)이상일때 지정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늘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한 데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컨티전시플랜)의 첫 번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이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낮춘다. 코스피 종목은 ▲당일 주가 5%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3배 이상일 경우 ▲주가 20%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

코스닥과 코넥스 종목도 ▲주가 5%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일 경우 ▲주가 20% 하락·공매도 거래대금 1.5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경제를 미리 반영하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선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제 유가·증시 급락 등 복수의 크고 작은 악

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다. 한국도 바람 앞의 등불이다. 금융시장은 바짝 긴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 소비 심리 위축,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편집자주>

한치 앞 모를 지구촌 증시

퍼펙트스톰 우려, 실물시장도 빨간불 한은 "공개시장 운영 등 리스크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증시, 환율 등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국제유가에 증시, 금리 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금융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지구의 유로넥스트 증권거래소 전광판이 9일(현지시간) 파리 증시 벤치마크인 CAC40 지수의 폭락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팬데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전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

며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24.59(10.15달러) 내린 31.13달러에 마감했다. 석유 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OPEC 비회원국간 감산 협상이 결렬된 탓이다.

지난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192.3원)보다 11.9원 오른 1204.2원에 장을 마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유가가 폭락하며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 강한 약세 압력을 받았다.

글로벌 증시는 금융위기급 폭락세를 보였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013.76포인트(7.79%) 급락하며 2008년 10월 15일(7.84% 하락)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지수도 전장 대비 7.60% 폭락하며 주가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3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로 소폭 반등

코로나19 확산세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와중에도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사들였다. 전일 글로벌 주요 증시가 급락했지만 한국 증시는 전일 급락에서 벗어나 3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장중 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6포인트(0.42%) 오른 1962.93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054억원, 614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외국인

은 9866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5.37포인트(0.87%) 상승한 619.9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증시 반등에도 코스피지수는 1900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1900선의 하향 이탈 가능성, 일부 부실기업들의 도산 가능성까지 모두 열여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가보다 6.1원 내린 1198.1원에 거

래를 마쳤다.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값은 전날의 가파른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한 듯 소폭 하락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167원(-1.80%) 하락한 6만3558원에 장을 끝냈다.

국제유가 역시 20% 이상 내려앉았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4.6%(10.15달러) 떨어진 31.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송태하 기자 alvin@

코로나 피해 금융지원 빨라진다 신보 보증심사, 은행 위탁 확대

금융위, 금융지원 현장 점검 결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본지 3월10일자 1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지난 3일부터 6일간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대출 현황을 점검했고, 금융위 실무진도 24개 금융회사 지점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세훈 금융위 정책국장은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 직원을 지정해 대응하고 있고, 또 상담대 뉴얼·지침이 현장까지 많이 전파되고 있다"며 "주변상권에 공동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로 신한은행을 소개했다. 신한은행의 각 영업점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

향조정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도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4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를 연장했다.

다만 금융위는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부 대출에 70~90% 집중돼 보증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적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정책국장은 "1차 타격이 내수 서비스업종에 몰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점차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도 예상돼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지원 방안에는 회사채 신규발행 지원(P-CBO)을 예정된 규모보다 5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사유리 기자 yul115@